

# 공매도 폐지가 답인가?

## 목차

1. 도입
2. 공매도의 정의
3. 공매도 현황
4. 찬성 측 주장
5. 반대 측 근거
6. 결론
7. 주요 참고 텍스트

# 도입

-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 \*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을 줌으로써 위조주식이 발행된 사건
  -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 \* 물량을 앞세워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공매도를 통한 차익을 실현하려는 대형 펀드들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의 연합으로 주가가 폭등한 사건
- ⇒ 공매도에 대한 대형 투자자와 개인 간의 갈등

# 공매도의 정의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 값에 사는 것으로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10만원인 A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A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5%의 이자(5천원)를 약속하고 A 주식을 빌려서 팔아 10만원의 현금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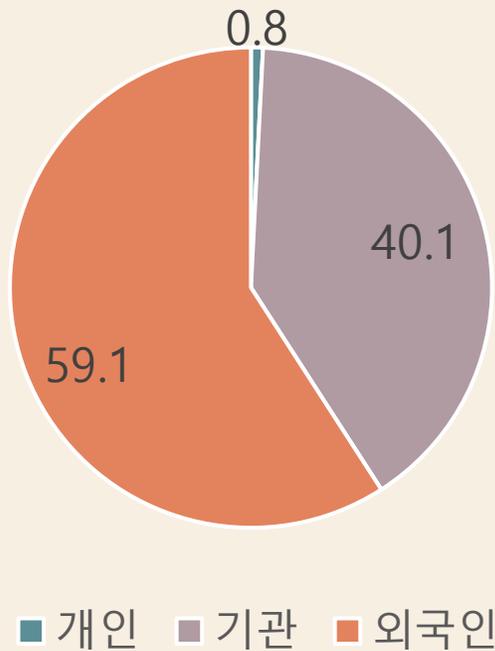
이후 A 주식 가격이 8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A 주식을 사서 갚는다



최종적으로 현금 2만원에서 이자 5천원을 뺀 1만 5천원의 이득을 본다

# 공매도 현황

코스피 공매도 거래 비중



주요 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2019

출처: 한국거래소, 2019

# 찬성 측 근거 1

-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공매도는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로 나뉨

- \* 대차 거래: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혹은 전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대주 거래에 비해 조건이 좋음
- \* 대주 거래: 개별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거래 물량과 빈도가 낮고 조건이 안 좋음

⇒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차별을 받음

# 찬성 측 근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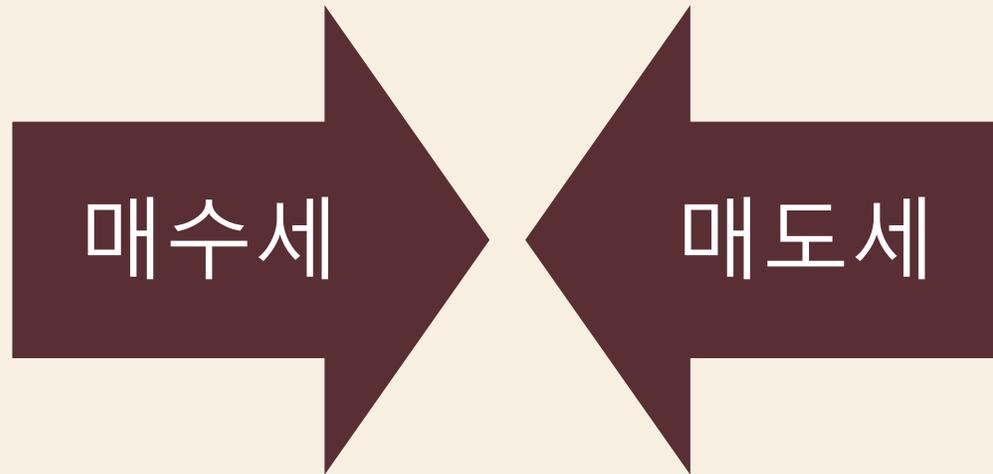
## ·공매도 제도의 불투명성

한국의 경우 공매도 시장의 비전산화와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는 여러 조건들로 인해 공매도 시장의 관리와 감독이 어려움. 삼성전자 위조주식 발행 사태(2018)이 대표적인 사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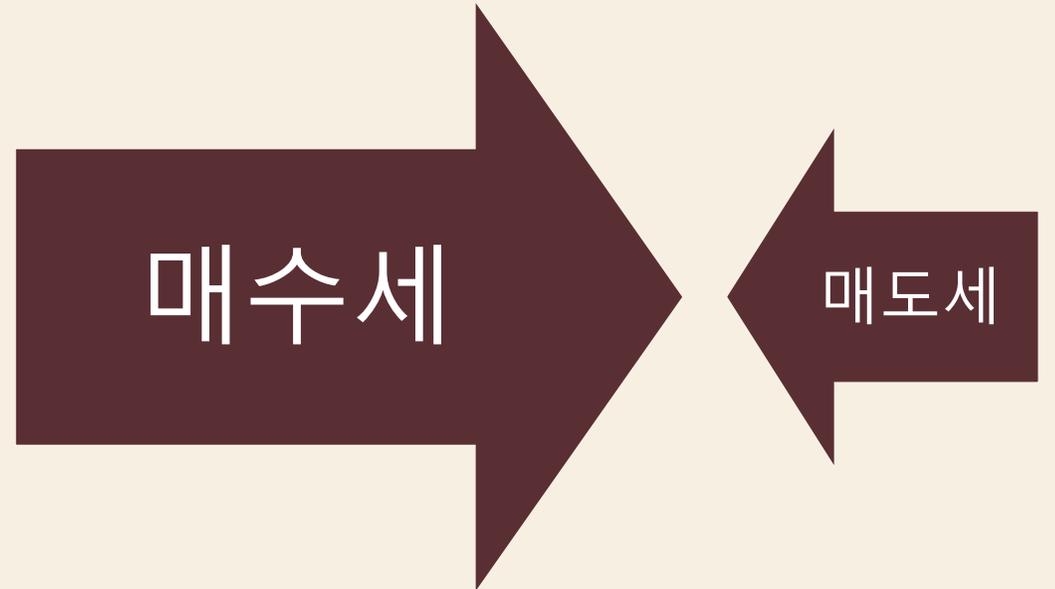


# 반대 측 근거 1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가 존재하는 곳



공매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

# 반대 측 근거 1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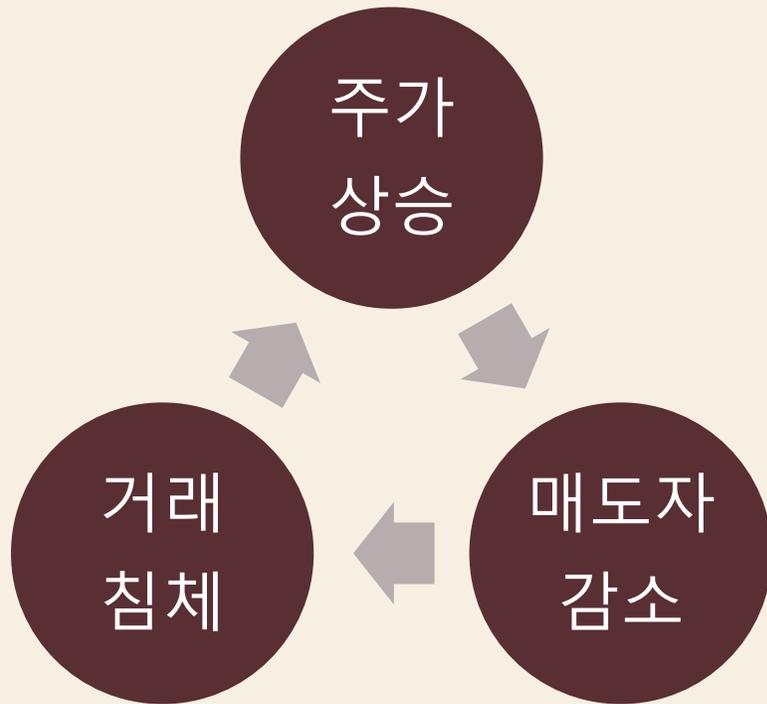
만약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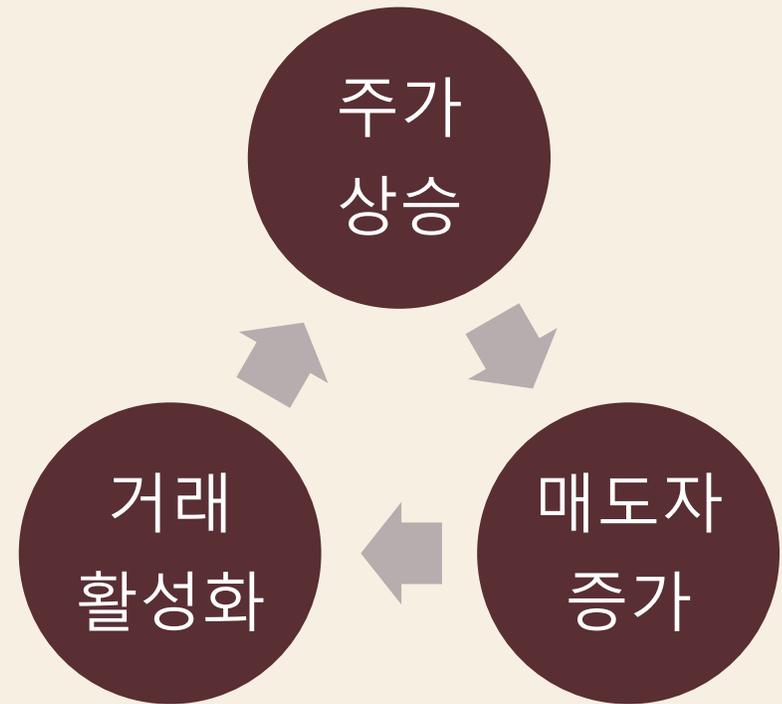
\* 효율적 시장 가설은 공매도 제도의 존재를 요구함

# 반대 측 근거 2

-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됨



공매도 제도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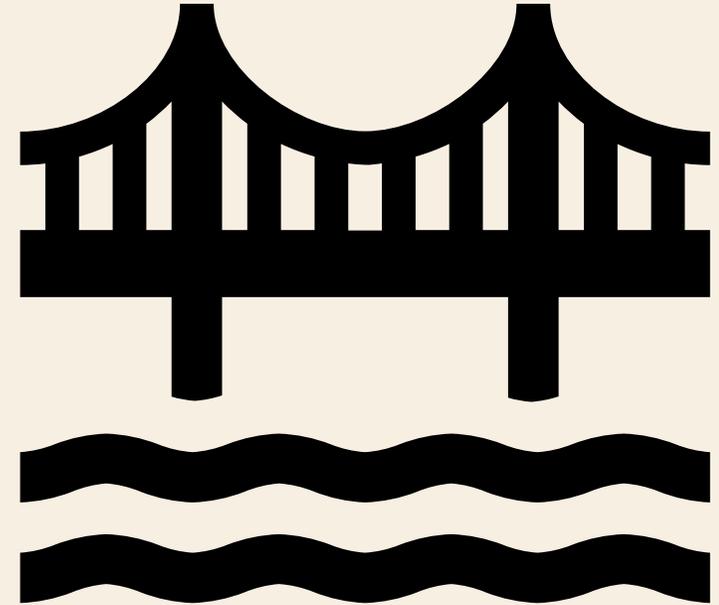


공매도 제도가 있는 경우

# 반대 측 근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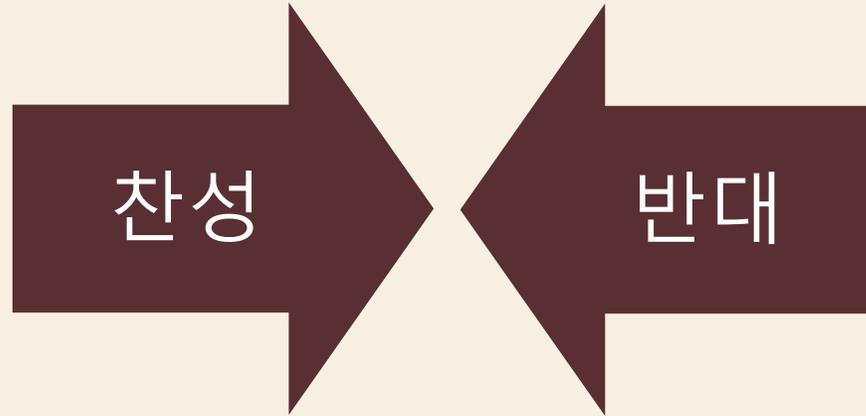
•공매도가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의 통로로 기능하기도 한다. 일례로 분식회계로 몰락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텐스의 부실 의혹을 폭로한 곳은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헤지 펀드였음



# 결론

- 개인 투자자 차별
- 불건전성



- 유가시장 안정화
- 기업의 적정 가치 평가

## 해외의 대차 거래 허용 사례

- \* 미국: \$5,000 이상의 예탁금+준비 자산을 지닌 개인 투자자는 예탁 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허용
- \* 일본: 200만 엔의 예탁금+준비자산을 가진 개인 투자자는 예탁 자산의 300%까지 무제한 허용

# 주요 참고 텍스트

- \* 공매도 불만... 10명 중 6명 " 폐지하거나 금지연장 해야", 2020, 서울경제, 심우일 기자
- \* "공매도=주가 하락?"... 공매도에 대한 세가지 오해, 202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 \*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장명원

감사합니다